

5개공무원단체 '지역화합' 발원 합동법회

27~28일 은혜사서... 경북·전북도청·감사원·국정원 등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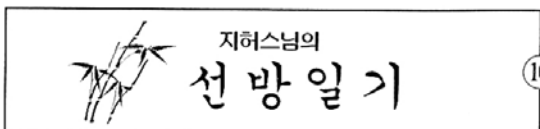
영천시청 불자회 창립

영천 은혜사에서 5개 공무원불자회 합동 성지순례법회가 열렸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북도청, 전북도청, 영천시청 등 5개 단체 불자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영천 은혜사(주지 법타) 주관으로 합동 성지순례법회를 갖고 함께 정진하며 신심을 쌓고 교류를 증진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지역간 화합도 다짐 합동성지순례법회는 5개 단체 회원 3백여명이 참가하며 입제식에서 은혜사주지 법타스님이 법문을한다. 특히 이날 창립식을 겸해 참가하

는 영천시청불자회는 영천시장을 포함하여 회원 50여명이 참석한다. 성지순례법회는 은혜사 가람공부, 거조암 오백나한 참배 및 철야 정진 등으로 진행된다. 28일에는 아침예불 후 선봉사 갖바위 약사여래불을 참배한 뒤 5개단체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이어 감사원불자회 평화점안식을 갖고 서울로 이운한다. 점안되는 법회는 감사원불자회가 강당에서 법회시 모실 목적으로 원래 13m에 이르는 은혜사 법당의 이미타 괴불명화(보물 1270호)를 2m로 축소하여 제작했다. 이번 성지순례법회와 관련 감사

원불자회 지도법사 청암스님(은혜사 교무국장)은 "앞으로도 여러 단체들이 참가하는 법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공무원불자회의 활성화를 기원한다"며 "상호 교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불자회는 올해말까지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으로 최근 들어 청와대 불자회와 구청불자회들이 참여하는 법회를 폭넓게 열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선객이 병들면 갈곳 없으니...



선방일기

(지난 호에 이어)

선객의 우열은 화두에 끌리느냐 끄느냐가 결정한다. 화두에 끌린 선객은 한한(閑閑)하나 화두를 끄는 선객은 간간(閑閑)하다. 우리 상원사 대중 스님은 우열이 반반이다. 아무래도 상편쪽이 한가롭고 하편쪽이 분망하다. 상편과 하편은 비구계 받은 순으로 결정된다. 화선의 몸가짐이 상편쪽은 태산처럼 여여부동이나 하편쪽은 여름날제처럼 변화무상하다.

헛기침을 하는가 하면 마른 기침을 하고 가부좌와 고통을 달래보느라 발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허리에 힘을 쥐뉘기도 하고 몸을 좌우로 혹은 앞뒤로 흔들며 보기도 하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는가 하면 포개어진 손을 위아래로 바꾸어 보기도 한다. 화두에 끌리지 않고 끌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들에게 방선의 죽비소리가 들릴없는 복음성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들도 선방을 떠나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죽비소리가 아쉬워지다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있게 된다.

스님이라면 누구나 선방밥을 먹지 않은 스님이 없다. 왜냐하면 선이 불교의 요체이고 경성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방을 의면한 이유는 이 초기의 고통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중 가운데 신경통을 몹시 앓는 스님이 있다. 이 스님은 화두에 끌리다니는 스님인데 신경통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 매 세시간의 좌선시간 중에서 한 시간 정도 앉고 나머지 두시간은 도량에서 보행하면서 행선을 한다.

새벽시간이나 밤시간에도 누더기를 의지하여 선행중 속에서 행선하면서 대중스님과 똑같이 참선시간을 지키는 열의는 대단하다. 화두에 끌리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다.

11월 28일 병든 스님

결핵에 신음하던 스님이 비강을 췌했다. 몸이 약하지만 그래도 곳곳이 선방에서 배기던 스님이다. 어제 저녁부터 각혈이 시작되었다. 부득이 떠나야만 한다. 결핵은 전염병이고 선방은 대중 처소이기 때문이다.

각혈을 하면서도 포정에서 미소를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동진출가한 40대의 스님이어서 의지할 곳이 없다. 어디로 가야할 지 알 수 없다면 서도 절망이나 고뇌를 보여주지 않는다. 조용한 체념뿐이다.

뒷방 조실스님의 제의로 모금(募金)이 행해졌다. 선객들에게 무슨 돈이 있었는가. 결핵과 함께 떠나는 스님이 평소 대중에게 보여준 인상이 극히 좋아서 대중스님들은 비강 속을 뒤지고 호주머니를 털어 비상금을 몽땅 내놓았다. 모으니 9,850원이다. 사중에서 5천원을 내놓았고 시계를 차고 있던 스님 두분이 시계를 풀어놓았다.

나는 마침 내복이 여벌 있어서 떠나는 스님의 비강속에 넣어 주었다. 결핵요양소로 가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며 장기치료를 요하는 병인데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는 돈이다. 응급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돈이다. 모금해준 성의에는 감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에겐 죄송스러워 용서를 바랄 뿐이었던 서 바깥을 걸었다. 눈 속에 트인 외가다길 따라 풀쭉거리면서 떠나갔다. 그 길은 마치 세월같은 길여서 다시 돌아올이 없는 길같기도 하고 명부(冥府)의 길로 통하는 길 같기도 하다.



화두 잃고 약 찾는 스님 추해보여 반살림 철야정진은 수마와의 싸움

인생하처래 인생하처거(人生何處來 人生何處去)가 무척이나 처연하고 애절하게 느껴지는 나의 증생심 때문이었다. 나도 저 길을 걸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답답했다. 아직 견성하지 못한 나로서는 당연한 감정이기도 하다.

현대의 우리 불교계 풍토에선 병든 스님은 갈 곳이 없다. 더구나 화두가 전부인 선객이 병들면 갈 곳이 없다. 날마다 수를 더해 가는 약국도, 시신을 늘려가는 병원이든 그들이 표방하는 표제는 '인술'이지만 화두뿐인 선객을 맞아들일만큼 여질지는 못하다.

자비문중이라고 스스로가 말하는 절간에서도 병든 선객을 위해 배를 지는 없다. 고작해야 독실이 절에서 뒷방이나 하나 주어진다면 임종집이나 편히 갈까.

그래서 훌륭한 선객일수록 훌륭한 보견자이다. 견성은 절대로 단시일에 가능하지 않고 견성을 시기하는 것이 바로 병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섭생에 철저하다. 견성이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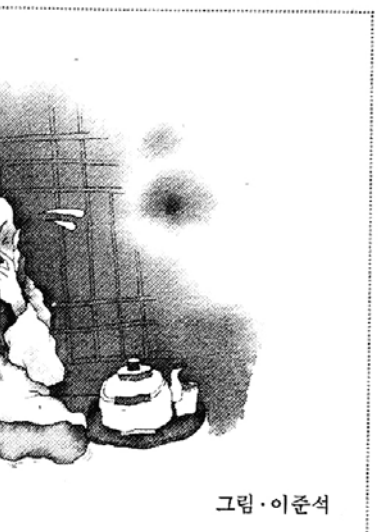
의 초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의 조화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선객은 부처님처럼 위대해 보이거나 병든 선객은 대처승(待處僧)보다 더 추해진다.

화두는 멀리 보내고 비루(鄙陋)와 비열(卑劣)의 옷을 입고 약을 찾아 해마다. 그는 이미 선객이 아니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재물이 되고 만다.

신외(身外)가 무물(無物) 차인물은 정신성 속에서 살아가는 선객일수록 무물적이고 속한(俗漢)적이라고 타기할게 아니라 화두 다음으로 소중히 음미해야 할 잠언이다.

12월 1일 용맹정진

설날이다. 동안거의 반살림을 끝내고 반살림을 시작할 때는 어느 선방에서나 용맹정진을 한다. 용맹정진이란 수면을 거부하고 장좌불와함을 말한다. 주야로 일주일동안 정진



그림·이준석

학교폭력·왕따 상담 하세요

교사불자전 20일 전화 '720-0218' 개통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진로지도 상담전화는 교계에 처음으로 개통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안숙)는 20일 서울수송동 수송빌딩 4층에서 사무실 개원식을 갖고 '교육상담전화' 개설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교사불자연합회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처하고 진로 및 진학지도에 대해 개선했던 상담전화는 20일 개통해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교직 경력 40년 이상의 불자교사들이 상담에 응한다. 전화 (02)720-0218, 팩스 (02)720-8871

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학교에 알려 해결을 유도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불교관련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여 3월말까지 초고를 완성한다. 교사불자연합회는 조계종 포교원 교과서위원회를 통해 교육부 교재편찬위에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교과서 분석작업은 지난해 4월부터 전국의 불자교사들이 참여해 진행중인 방대한 작업.

김원우 기자

한빛은행불자회 창립

한빛은행인 한빛은행불자회가 창립한다. 한빛은행불자회 창립법회가 20일 오후 4시 소공동 본점 5층강당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한빛은행불자회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법문을한다.

이에앞서 부산 한빛은행불자회는 14일 부산양정청소녀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부산법회는 정관스님(영주암 주지)이 법문을했다.

한편 한빛은행은 상업은행과 한입은행의 합병은행으로 불자회도 합병을 통한 조직개편에 힘쓰고

우리 모임에선

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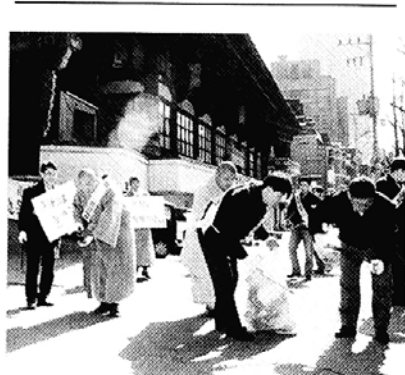
금용단불자명찰순례

전국금용단불자연합회(회장 김운하)는 28일 성철스님이 출가한 문경 봉암사에서 명찰순례행사를 갖는다.

'성철스님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갖는 이번 명찰순례는 성철스님의 수행정신을 본받아 더욱 열심히 정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반야회 9돌기념 강연

한국전력 반야회(회장 김영창)는



조계사 주변 청소... "마음까지 맑게"

조계종 총무원 원외회(회장 전형근)는 설날 다음날부터 매일 오후 1시간씩 조계사 주변을 청소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참회와 정진의 해'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활동에는 총무원 소임스님들도 함께 참여하여 주변사람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박정규주임은 "중요종무원들이 숲선수법하여 주변을 깨끗이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주변에서도 반기고 있어 조계종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25일 한전본사 별관1층 세미나실에서 창립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는 박광서교수(우리선승 대표)가 '불교와 물리학'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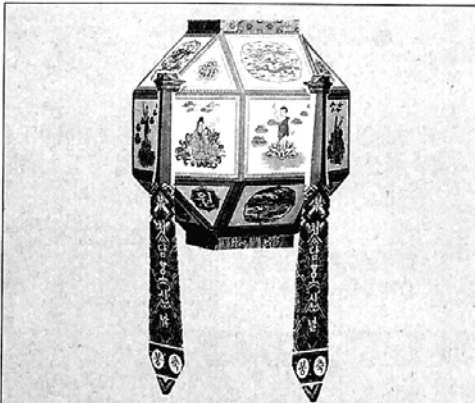
김영창회장은 "창립 9주년을 맞는 반야회 발전을 위해 전방을 위한 법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회원의 확고하여 10주년을 맞겠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전운불 낙산사 순례

대전운전기사불자연합회 금강지부(지부장 송화영)는 31일 설악산 낙산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날 행사에는 70여명의 회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조립용(8cm, 10cm) ◆ 조립용위에 인원을 붙인 상태 ◆ 인동원성품

문의 하실 곳 :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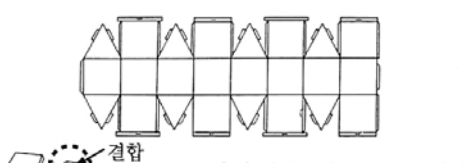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이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정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목장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음식품의 성분이 신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낫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궁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새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거기가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제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태반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꼽(신혈)에 찌는 것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통이 사라졌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용해 고민해 왔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 애당되는 증상(○)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두통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생리통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장이 약하거나 신장염이 있다.
 7. 두통이 있거나 두통이 있다.
 8. 생리수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실이 찢힌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를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글은 실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바짝거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노도 검사상으로 고통을 얻었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